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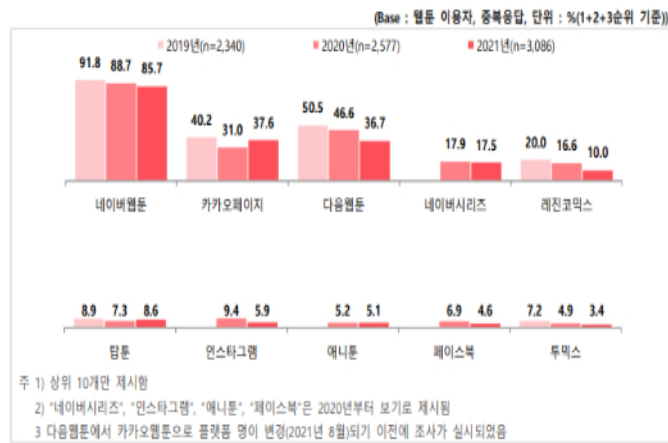
[소개]
서비스 소개

[목차]

기획배경
시장조사
서비스 소개
한계
QnA

기획 배경

여러분들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많이 보시나요? 가볍게 한 두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등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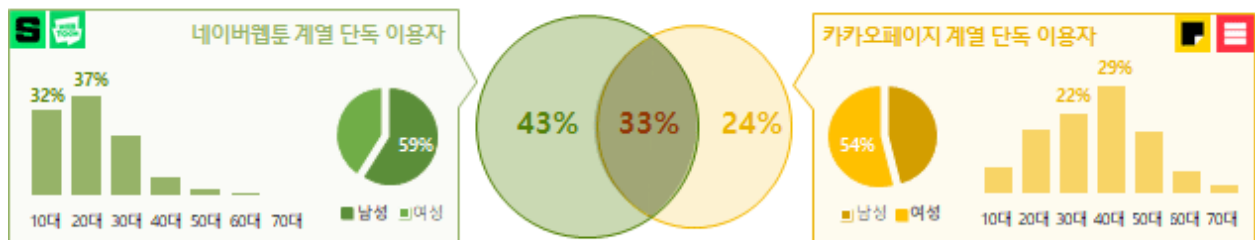


2020년 웹소설 주 이용 플랫폼 (복수 응답) (단위: %)

카카오페이지	68.7
네이버시리즈	47.5
네이버웹소설	44.3
문피아	17.8
조아라	17.2
리디북스	14.7

실제로 통계자료를 보면, 점점 시장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스낵컬처로서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감상하는 사용자, 혹은 가볍게 즐기는 사용자 중에는 새로운 작품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 Nievesn-Koreanclick Android & iOS Mobile Behavioral Data (2020.07)

그리고 33 % 이용자들이 한 가지 플랫폼만 이용하기보다는 가장 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직 하나의 작품을 추천 받는다면 이들에게 재밌는 웹툰 하나를 추천 받으면 어떨까요? 저희 팀의 서비스, '레코델리'는 웹툰 웹소설 통합서비스로서 이들에게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기반으로 말이죠.

시장조사

웹툰을 통합하는 사이트와 웹소설을 통합하는 사이트를 시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웹툰에서는 비교군이 없었습니다. 웹소설의 경우는 소설넷이라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곳은 웹소설에 대한 리뷰와 별점을 남길 수 있고, 랭킹과 간단한 추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소설넷에서 아쉬운 점은 오직 추천 서비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소설넷의 추천 시스템의 경우 평점을 남긴 작품이나 관심없다고 남긴 작품도 계속 추천이 되고, 추천의 결과가 계속 비슷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추천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플랫폼 가령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에서의 아쉬운 점은 흔히 1화의 댓글창에 작품에 대한 리뷰와 총평이 섞여있습니다. '이 작품 정말 재밌어요', '명작이에요', '꼭 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같은 추천 후기, '결말에서 이상해져서 용두사미가 됨', '돈낭비하지 말고 제발 지금 뒤로가기 누르세요' 등 심하게는 욕설도 섞인 비추천 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 비추천 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용에 대한 댓글이 많이 섞여 때문에, 독자들은 댓글창에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리뷰를 찾으려 계속 스크롤을 내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레코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

레코델리는 간단히 소개하면, 리뷰 기반으로 웹툰과 웹소설을 **맛있게**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앞서 시장조사에 밝혔던 불편한 점을 저희 서비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2. 리뷰를 기반으로 맛있게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 작품에 대한 리뷰를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작품에 리뷰 다는 이들의 성별을 파악하여 여성 vs 남성의 차트를, 별점 분포를 원 차트로 나타내는 등등 사용자들이 느끼는 작품에 대한 감상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사용자는 작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읽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 리뷰를 기반으로 맛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었던 리뷰, 별점 등을 댓글창에서 힘들여 찾아보지 않고도 작품에 대한 평가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작품에 대한 리뷰를 남길 때 네이버 맛집 리뷰처럼 미리

리뷰에 자주 쓰는 표현들, 예를들어 ‘세계관이 탄탄해요’, ‘필력이 좋아요’, ‘재미있어요’와 같이 정형화시킨 태그를 선택하여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관있는 작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품의 제목이나 작가로 검색하여 통합적으로 검색 결과를 확인하거나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랭킹을 보기 등등 사용자 편의성을 늘릴 계획입니다.

피그마로 목업한 작업물을 보시죠

한계

그러나 현재로서의 한계로는 텍스트 리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능으로 확장하기에는 1.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크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2. 콘텐츠가 플랫폼에 의존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 저희는 태그 리뷰와 기존 작품 설명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 추천이나 **KNN** 방식을 이용해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텍스트 리뷰 분석 외에도 양질의 풍부한 추천을 해줄 수 있도록 강화하고, 플랫폼 의존적 콘텐츠라는 점에 리뷰를 더욱 중점적으로 살리는 방향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극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맞는 추천 맛집, 레코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